

청년 남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

The Attitudes toward Divorce of Young Men and Women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비자·가족아동학과

부교수 김 성 희*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Kim, Sung-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ttitudes toward divorce of young men and women.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425 respondents who resided in Sunchon. Statistical methods for the data analysis were frequencies, one-way ANOVA, t-test.

The data analysis revealed that the young men and women accepted divorce as an alternative to unhappy marriage and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toward divorce. Women accepted divorce more positively as an alternative than men in every conditions. Men accepted divorce remarkably as an alternative to unfaithful debauchery of spouse, but women accepted divorce extremely well as an alternative to wrongdoing of spouse. Most of young men and women were worried about children, but not a few of them did not perceived themselves as child rearer. This results showed that divorce will be increased and perceived differently by gender. The young men and women who had lower conservative familism, who were younger, and who had higher education responded more positively about divorce.

▲ 주요어(Key Words) : 이혼(divorce), 청년(young men and women), 성 차이(gender difference)

1. 서론

산업사회에서 가정은 정서적 애정적 만족을 제공하고 자녀를 적절히 사회화시키는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혼의 증가는 가정이 더 이상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는 0.4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2.8명으로 30년 동안 7배 증가하였고, 혼인율에 대한 이혼율비는 1970년 4.3에서 2002년 41.8로 급증하였다(통계청, 2002). 이혼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2001년 국정홍보처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44.2%가 배우자와 이혼할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한다(중앙일보, 2001).

개인의 행복 추구를 가장 우선시하는 현대인에게 이혼은 불행한 선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녀를 보호하고 가정을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 제한되어 있던 성인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자녀의 유기, 편부모 가정의 증가, 빈곤 문제, 청소년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고 있고, 아동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으로부터 가족문제를 최소화하고 이혼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혼의 실태, 이혼 여성이 경험하는 제문제, 적응과정,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조사되고 있다(곽배희, 2002; 김보경, 2001; 이종한·이윤희, 2000; 지명원, 2001 등). 이 들 연구 중 몇몇 연구가 기혼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있으나(전숙영, 1996; 한경혜·이정화, 2002 등), 이혼예방 교육의 대상자로서 결혼을 앞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최근 이혼이 '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강조되고 있으나(Heaton and Blake, 1999; 이재경, 2000), 이혼에 대한 태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은 가부장적 규범 속에서 성별분업에 따라 오랫동안 가정일을 안식처로 유지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남성이 사회활동

* 주저자: 김성희(Email : ksh@sunchon.ac.kr)

을 하는 것과 달리 여성 개인의 사회적 욕구는 억압되었고, 여성은 무보수 가사노동 수행자로서 약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하였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던 가족주의 가치관이 감소하고 사회활동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여성은 자신이 처한 불합리한 결혼생활에 저항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남녀에게 상이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던 가부장적 이중규범의 존재는 청년의 이혼에 대한 태도를 성별화(gendered)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혼에 대한 태도는 결혼과 가정에 어느 정도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희생해야 할 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미혼자를 대상으로 이혼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게 하고 결혼생활의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기혼자나 이혼자를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 및 이와 관련된 요소, 이혼의 영향과 결과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혼 청년들이 이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그들이 이혼이라는 사건에 직면하게 될 때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므로 이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남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부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과거에 이혼은 부양의무의 해태, 외도와 같은 결혼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유에 의해 발생했다. 그러나 점차 이혼사유가 다양화되고, 행복하지 못한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만큼 결혼유지에 심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도가 높아져가고 있다. 청년들은 어떤 경우에 이혼에 허용적인지 조사하는 것은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중요하다.

과거에는 결혼생활에 만족치 못해도 자녀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혼할 때 부부가 자녀양육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가 이혼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결혼생활 영위와 이혼예방을 목적으로 이혼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지,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통해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성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고, 그 밖에 이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이혼과 관련된 가정복지 정책과 교육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리라고 본다.

II. 관련 연구 고찰

1. 이혼의 범위와 실태

이혼이란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한 부부관계를 생존 중에 해

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혼에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해서 이혼하는 협의 이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현행 민법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혼 사유 중 여섯번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이중환·이윤희, 2000).

부부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어렵지만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파탄이 원인이 되는 경우,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는 아내의 문란행위, 허영으로 인한 지나친 낭비, 사치, 불성실, 거액의 도박을 했을 때이다. 둘째, 윤리적 정신적 파탄이 원인인 경우,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이나 의부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모욕 또는 가해 등이다. 셋째, 육체적 파탄의 원인으로서는 이유 없는 성관계의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동성연애, 성병 감염, 부당한 피임 등이 해당된다(이영숙·박경란·전귀연, 1999). 범죄, 약질, 주벽, 도박, 성불구, 의처증, 변태 등은 이혼 사유가 되고 있으나 불임, 혼전부정, 질투, 강간, 폐병은 그 원인이 되지 않고 있다(이정덕·김경신·문혜숙·송현애·김일명, 1998).

사유별 이혼 실태는 2002년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배우자 부정이 48.2%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본인에 대한 부당대우가 24.7%, 동거 부양의무 및 악의의 유기가 12.4%,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6.7%, 3년 이상 생사불명이 5.4%였다.

1994년 조사에서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 44.9%,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19.0%, 악의의 유기 17.4%,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0%, 3년 이상 생사불명에 의한 이혼이 7.1%였던 것과 비교하면(법원행정처, 1994),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계속 40% 이상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악의에 의한 유기는 5.0% 줄어들었으나,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5.7% 증가하였고,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1.7% 증가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혼사유는 1990년에는 부부불화가 81.8%, 가족간 불화가 3.5%, 건강상 이유가 1.4%, 경제문제 2.0%, 기타 11.3%였다. 1994년에는 부부불화로 인한 이혼이

80.4%, 가족간 불화로 인한 이혼이 2.7%, 건강상 이유가 1.1%,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 2.8%, 기타가 12.8%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2001년에는 이혼 사유 중 부부불화가 74.0%, 가족간 불화는 0.7%, 건강상 이유 1.0%, 경제문제 11.6%, 기타가 12.7%를 차지하였다. 부부불화는 계속 이혼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가족간 불화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구가정법률상담소(1999)에 따르면 민법이 정한 기타 사유에 의한 이혼은 경제갈등과 빚이 20.0%, 성격차이가 14.4%, 폭력 폭언 12.4%, 알코올 중독과 주벽 6.3%, 의처증 5.9%, 도박 5.1%, 무시가 4.6%, 불성실이 4.2%, 대화단절 및 애정상실이 3.4%, 거짓말과 기만이 3.2%, 생활양식 차이 2.8%, 정신병 2.8%, 장기가출과 별거 2.6%, 고부갈등 및 시형제자매 갈등이 2.4%, 성적 갈등 1.7%, 외도 1.1%, 사치 및 낭비가 1.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남자와 여자에게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의 경우 경제갈등 및 빚 때문이 가장 많았고, 남성은 성격차이가 가장 많았다.

이혼청구의 판례 분석에 따르면 성적 장애, 성관계의 거절, 성격, 건강상실, 의처증, 질병, 직장생활에 따른 가사부담, 가계 경제권의 박탈 등도 이혼의 사유로 제기되었다(신순자, 1999). 이혼의 사유는 점차 의사소통이나 이해부족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이현송, 1999)

이상의 연구 및 통계자료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이혼 사유를 크게 5가지 상황 즉 부부간 불화와 관련된 상황(성격차이, 의견 불일치, 대화부족, 가정생활에 불성실, 인격의 무시, 애정상실, 성적 갈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상황(성관계, 배우자의 사랑, 자신의 사랑), 경제문제로 관련된 상황(경제능력 부족, 빈곤, 가계 파탄), 윤리 및 건강과 관련된 상황(음주, 도박, 도벽, 폭행, 가출, 건강상실, 불임), 가족간 불화(배우자 직계존속과의 갈등,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범주화하였다.

2. 이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요인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에 대해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관 및 관념, 신념을 의미한다. 이혼에 대한 보수적 태도는 결혼체제를 반대하는 힘으로 작용하여 결혼의 결속력을 증가시키고, 이혼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결혼체제를 찬성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혼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가 이혼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이소희·정민자·김경희·박인전·손지미·김영란·홍계옥·도미향·김민정, 1998).

1998년 통계청의 이혼에 대한 태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은 19.0%, 가급적 해서는 안된

다는 41.3%,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는 29.1%,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는 7.4%,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한다는 1.2%였다. 이혼에 대해 '가급적' 또는 '경우에 따라서'와 같이 상황에 따라 허용적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70.4%로 매우 높았다(통계청, 2000).

과거에 이혼은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고려되었으나 이혼은 더 이상 고통스런 결혼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행복하지 않은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남녀를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한경혜·이정화(2002)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불행한 결혼을 참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혼에 대한 태도는 자녀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경혜·이정화(2002)의 조사에서 기혼자들의 45%가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였지만 자녀를 위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금까지는 많은 부모들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도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헌신이 사라지면서 자식들을 위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평화여성가정법률사무소에 의하면 이혼 사건 의뢰인의 절반 정도가 자녀양육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중앙일보, 2002). 200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소송 당시 자녀수가 1명 이상인 경우가 67.1%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7.7%였다. 이혼하는 부부의 절반 이상에게 자녀가 있지만 자녀 기르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01년 전국 이혼가정의 중고등학생 조사에서 친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38.6%, 친부와 사는 비율은 23.5%, 계모 및 친부와 사는 경우 13.5%, 계부 및 친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3.6%였고, 친부모 어느 쪽과도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7.2%였다(한국청소년상담원 편, 2001).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성인 여성을 상대로 이혼 부부 자녀의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조사한 결과에서는 '부모 중 잘 키울 수 있는 쪽'이 36%로, '어머니가 맡아야 한다' 29%보다 많았다(중앙일보, 2002). 근대사회에서 포스트모던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식의 욕구를 어머니의 욕구보다 우선시하는 모성에 정서가 파괴되고 있다(데이비드 엘킨드, 1999). 자녀 양육에 의무를 느끼는 여성이 감소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부모의 감소가 이혼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혼이 허용적이 되는 현상에 대해 Thornton(1989)은 가족행동관련 규범의 힘이 약화되고 개인의 선택으로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주의에서 자기성취, 자기만족이 강조되는 개인주의 가치관으로의 변화가 이혼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소희 외 8인, 1998). 이혼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지는 배경에는 가족주의 가치관의 약화와 더불어 개인주의 가치관의 팽배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집단의 단결과 영속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구성원들의 꾸준한 집단적인 노력을 말한다.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질 경우 사회구성단위로서 가족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하고 개인은 가족에서 독립된 존재로 보지 않으며,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특징을 갖는다(옥선화, 1989).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한경순, 1999)에 따르면 젊은 세대일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고 대학생은 가족중심적인 집합주의 가치성향이 약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전통적인 가부장권을 지향한다. 여성의 가치의식의 근대화 속도가 남성보다 빠르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2000) 조사에서 이혼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혼에 반대하는 비율이 남자는 63.7%, 여자는 57.0%로 남자가 높았고, 이혼에 찬성하는 남자는 7.3% 여자는 9.7%로 여자가 많았다.

이혼사유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재경(2000)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생각하는 이혼의 중요한 요인과 남성이 생각하는 이혼의 요인이 달랐다. 여성의 경우 폭언, 폭행 등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이혼사유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반면, 남성의 경우는 음주, 늦은 귀가, 단정치 못한 행동이 가장 많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이혼에 반대하는 비율이 초졸 이하는 75.2%, 중졸 56.6%, 고졸이 55.8%, 대졸 이상이 56.3%로 학력이 낮은 경우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통계청, 2000).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 행위 뿐 아니라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 사람은 결혼생활에 시간과 에너지를 덜 투자하고 부부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덜하며, 결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다(Amato & Rogers, 1999; Glenn, 1996).

또한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보다 자신의 이혼을 도덕적 실패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 보수적인 사람은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 우울증에 더 잘 빠지고 덜 행복해 한다(Booth and Amato, 1991). 이처럼 이혼에 대한 태도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과 이혼 후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남녀의 이혼자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살펴보고, 다양한 상황에서 이혼에 대해 어느 정도의 허용성을 보이고 있는지,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통해 이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가족주의 가치관, 성별,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고, 종교에 따라서는 이혼을 금하는 종교도 있으므로 청년의 이혼에 대한 태도와 이들 변인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혼은 성별화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이혼에 대한 남녀의 태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전라남도 초혼연령은 남자 28.8세, 여자 25.7세로 평균 27.3세에 혼인하였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혼인이 유효하다고 규정하므로(이정덕 외 4인, 1998) 본 연구에서는 미혼 연령이라고 볼 수 있는 18세에서 27세까지의 청년 남녀를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예비조사는 남녀 각 50명에게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본 조사는 2001년 10월 15일부터 25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500부를 배부하여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425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듯이 18-20세가 36.2%, 21-23세 39.8%, 24-27세가 24%를 차지하였다. 성별 비율은 남자가 40%, 여자가 60%였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32.9%, 천주교 7.5%, 불교 15.5%, 무교가 44.0%였다. 학력은 대재학 이상이 89.6%, 고졸 이하가 10.4%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25)

	구분	빈도(%)
연령	18-20세	154(36.2)
	21-23세	169(39.8)
	24-27세	102(24.0)
성별	남자	170(40.0)
	여자	255(60.0)
신앙	기독교	140(32.9)
	천주교	32(7.5)
	불교	66(15.5)
	무교	187(44.0)
학력	고졸 이하	44(10.4)
	대재학 이상	381(89.6)

2. 조사도구

1) 이혼에 대한 태도

청년들의 이혼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혼자에 대한 태도를 1문항 구성하였다. 상황에 따른 이혼에 대한 태도는 5개의 상황 영역으로 나누어 부부간 불화와 관련된 상황 7문항, 부정행위와 관련된 상황 3문항, 경제문제와 관련된 상황 3문항, 윤리 및 건강과 관련된 상황 7문항, 가족간의 불화와 관련된 문항 2문항, 총 22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결코 이혼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이혼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이혼한다', '반드시 이혼한다'의 4점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각에 1점에서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문항간 상관도인 Cronbach's Alpha는 .90으로 매우 높았다.

자녀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는 자녀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가 이혼에 대한 태도와 관련있다고 보고 '이혼시 가장 걱정되는 것'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 때 이혼을 쉽게 결정한다고 보아 '이혼시 자녀양육자'는 누가 되길 원하는지를 조사하였고, 이혼을 부모자녀관계의 단절로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이혼을 더욱 쉽게 할 것이라 여겨 '자녀가 있을 때 전 배우자와의 면접회수'를 조사하였다.

2) 가족주의

유계숙·유영주(2002), 한경순(1999), 옥선화(1989)의 연구를 참조로 가족주의 가치관 중 가족의 통합성과 개인주의 가치관을 동시에 잘 나타내는 문항인 '내가 좋아해도 가족이 반대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나 자신의 관심보다 내 가족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 '나의 즐거움보다 가족의 즐거움이 우선한다', '가족을 위해 나의 생활을 양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4개 문항을 가족주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은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매우 반대', '약간 반대'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많을수록 가족의 통합성을 중시하고 적을수록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문항간 상관도인 Cronbach's Alpha는 .74로 높았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이혼자에 대한 전반적 태도

청년들은 이혼자에 대해 실패한 인생이며 비정상적이라 보는 부정적 견해는 매우 적게 갖고 있었다. 9.4%만이 이혼에 대해 극히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표 2>. 이혼한 삶을 성공·실패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적이라 보는 경우는 84.0%로 많은 청년들이 이혼을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정상·비정상 여부에 관계없이 56.2%의 청년들이 이혼을 실패한 인생으로 보았다. 청년들의 이혼자에 대한 견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견해는 '실패한 인생이나 정상적'으로 본 것이었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이혼자를 실패한 인생이라 보고 있었다.

이혼자에 대한 견해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자의 경우 '실패한 인생이나 정상적'이라고 본 자가 가장 많았던 반면 여자의 경우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며 정상적'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이혼을 정상적인 선택된 삶으로 받아들

이는 경향은 여자에게서 높았다.

청년들이 이혼자에 대해 대체로 정상적이라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한편 이혼을 실패한 인생으로 간주하는 비중도 낮지 않으므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이혼자에 대한 전반적 태도

	남	여	계 (%)
	N(%)	N(%)	
실패한 인생이 아니며 정상적	38(22.4)	120(47.1)	157(37.2)
실패한 인생이 아니며 비정상적	16(9.4)	12(4.7)	28(6.6)
실패한 인생이며 비정상적	26(15.3)	14(5.5)	40(9.4)
실패한 인생이나 정상적	90(52.9)	109(42.7)	199(46.8)
계(%)	170(100.0)	255(100.0)	425(100.0)
χ^2	32.86***		

***p<.001

2. 상황에 따른 이혼에 대한 태도

1) 부부간 불화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태도

청년들은 부부간에 불화가 있을 경우 이혼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표 3>. 성격이 잘 맞지 않는 경우 가능한 한 또는 반드시 이혼하겠다는 비율은 43.3%, 의견이 잘 맞지 않는 경우는 21.2%였다. 대화가 없을 경우에는 38.1%, 배우자가 일에만 매달려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33.1%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였다.

배우자가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매우 높은 비율인 70.3%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였다. '반드시 이혼한다'고 하는 비율은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에 가장 많아 여자의 51.8%, 남자의 21.2%, 전체의 39.5%였다. 청년들은 부부간의 화합 또는 통합성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혼에 대한 허용도가 높았다.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 다음으로 이혼 허용이 높았던 상황은 부부간에 애정을 느끼지 못할 경우였다. 애정을 느끼지 못할 경우에는 57.0%가 이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불만족스런 성생활을 할 경우에는 34.4%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여 청년들은 불만족스런 성생활을 할 때보다 애정을 느끼지 못할 때 이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청년들은 결혼생활에서 육체적 교류보다 정신적 교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기회는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부부관계에서 육체적 요인보다 정신적 애정을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부부간 불화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태도

(N=425)

	성별	결코 이혼하지 않는다 N(%)	가능한 한 이혼하지 않는다 N(%)	가능한 한 이혼한다 N(%)	반드시 이혼한다 N(%)	M(SD)	t
성격이 잘 맞지 않는 경우	남	29(17.1)	93(54.7)	31(18.2)	17(10.0)	2.21(.84)	-5.92***
	여	9(3.5)	110(43.1)	84(32.9)	52(20.4)	2.70(.83)	
	계	38(8.9)	203(47.8)	115(27.1)	69(16.2)	2.51(.87)	
의견이 잘 맞지 않는 경우	남	40(23.5)	103(60.6)	18(10.6)	9(5.3)	1.98(.74)	-3.88***
	여	19(7.5)	173(67.8)	42(16.5)	21(8.2)	2.25(.71)	
	계	59(13.9)	276(64.9)	60(14.1)	30(7.1)	2.14(.74)	
대화가 없을 경우	남	30(17.6)	92(54.1)	30(17.6)	18(10.6)	2.21(.86)	-4.32***
	여	9(3.5)	132(51.8)	76(29.8)	38(14.9)	2.56(.79)	
	계	39(9.2)	224(52.7)	106(24.9)	56(13.2)	2.42(.83)	
일에만 매달려 가정에 무심할 경우	남	26(15.3)	99(58.2)	32(18.8)	13(7.6)	2.19(.78)	-3.47***
	여	8(3.1)	151(59.2)	71(27.8)	25(9.8)	2.44(.71)	
	계	34(8.0)	250(58.8)	103(24.2)	38(8.9)	2.34(.75)	
배우자가 인격을 무시할 경우	남	17(10.0)	63(37.1)	54(31.8)	36(21.2)	2.64(.93)	-8.13***
	여	3(1.2)	39(15.3)	81(31.8)	132(51.8)	3.34(.78)	
	계	20(4.7)	102(24.0)	135(31.8)	168(39.5)	3.06(.91)	
애정을 느끼지 못할 경우	남	18(10.6)	85(50.0)	40(23.5)	27(15.9)	2.45(.88)	-5.78***
	여	5(2.0)	75(29.4)	107(42.0)	68(26.7)	2.93(.80)	
	계	23(5.4)	160(37.6)	147(34.6)	95(22.4)	2.74(.86)	
불만족스런 성생활을 할 경우	남	31(18.2)	91(53.5)	31(18.2)	17(10.0)	2.20(.85)	-3.04**
	여	15(5.9)	142(55.7)	68(26.7)	30(11.8)	2.44(.76)	
	계	46(10.8)	233(54.8)	99(23.3)	47(11.1)	2.35(.82)	

p<.01 *p<.001

부부간 불화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이혼에 더 허용적이었다. '반드시 이혼한다'는 반응을 보면 배우자가 인격을 무시할 경우는 여자가 남자보다 30.6%, 애정을 느끼지 못할 경우는 10.8%, 성격이 잘 맞지 않는 경우는 10.4% 많았다. 대화가 없을 경우와 의견이 잘 맞지 않는 경우, 일에만 매달려 가정에 무심할 경우, 불만족스런 성생활을 할 경우에도 여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부정행위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태도

청년들은 부부간의 성적 불만족은 크게 문제삼지 않았지만 성의 독점성이 깨진 경우에는 이혼하려는 경향이 높았다<표 4>.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80.2%가 이혼하려 하였다. 남자의 49.4%가 '반드시 이혼한다'고 하였고, 여자의

56.1%가 '반드시 이혼한다'고 하였다.

배우자에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경우에는 더욱 높아 85.2%가 이혼하려 하였다. 남자의 51.8%, 여자의 67.5%가 '반드시 이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부정행위에는 매우 관대해서 자신에게 다른 사랑하는 상대자가 생긴 경우에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72.7%로 상대방의 경우와 전혀 다른 경향을 보였다. 남자의 31.2%, 여자의 16.1%가 '결코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신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보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하려는 가부장적 성향을 남자에게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여자가 더 이혼에 허용적이었다.

3) 경제문제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태도

<표 4> 부정행위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태도

(N=425)

	성별	결코 이혼하지 않는다 N(%)	가능한 한 이혼하지 않는다 N(%)	가능한 한 이혼한다 N(%)	반드시 이혼한다 N(%)	M(SD)	t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남	7(4.1)	34(20.0)	45(26.5)	84(49.4)	3.21(.90)	-2.22'
	여	-	43(16.9)	69(27.1)	143(56.1)	3.39(.76)	
	계	7(1.6)	77(18.1)	114(26.8)	227(53.4)	3.32(.82)	
배우자에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경우	남	5(2.9)	28(16.5)	49(28.8)	88(51.8)	3.29(.85)	-3.29***
	여	1(4)	29(11.4)	53(20.8)	172(67.5)	3.55(.71)	
	계	6(1.4)	57(13.4)	102(24.0)	260(61.2)	3.45(.78)	
나에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경우	남	53(31.2)	82(48.2)	25(14.7)	10(5.9)	1.95(.83)	-3.30***
	여	41(16.1)	133(52.2)	65(25.5)	16(6.3)	2.21(.79)	
	계	94(22.1)	215(50.6)	90(21.2)	26(6.1)	2.11(.82)	

*p<.05, ***p<.001

<표 5> 경제문제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태도

(N=425)

	성별	결코 이혼하지 않는다 N(%)	가능한 한 이혼하지 않는다 N(%)	가능한 한 이혼한다 N(%)	반드시 이혼한다 N(%)	M(SD)	t
배우자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을 경우	남	60(35.3)	85(50.0)	17(10.0)	8(4.7)	1.84(.79)	-9.05*
	여	14(5.5)	124(48.6)	78(30.6)	39(15.3)	2.56(.82)	
	계	74(17.4)	209(49.2)	95(22.4)	47(11.1)	2.27(.88)	
궁핍한 생활이 계속될 경우	남	56(32.9)	87(51.2)	18(10.6)	9(5.3)	1.88(.80)	-8.24***
	여	8(3.1)	144(56.5)	62(24.3)	41(16.1)	2.53(.80)	
	계	64(15.1)	231(54.4)	80(18.8)	50(11.8)	2.27(.86)	
배우자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남	22(12.9)	53(31.2)	40(23.5)	55(32.4)	2.75(1.05)	-5.57***
	여	6(2.4)	56(22.0)	49(19.2)	144(56.5)	3.30(.89)	
	계	28(6.6)	109(25.6)	89(20.9)	199(46.8)	3.08(.99)	

*p<.05, ***p<.001

가정경제의 위기는 이의 극복을 위한 가족간의 통합과 결속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해체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청년들은 배우자가 실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을 때 33.5%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였고 궁핍한 생활이 계속될 경우에는 30.6%가, 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67.7%가 이혼하겠다고 하였다<표 5>.

경제문제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이혼에 더 허용적이었다. 궁핍한 생활이 계속될 경우 여자의 16.1%가 '반드시 이혼한다'고 한 것에 비해, 남자는 5.3%만이 '반드시 이혼한다'고 하였다. 배우자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여자의 56.5%가 '반드시 이혼한다'고 하였지만 남자는 32.4%가 '반드시 이혼한다'고 하였다.

실업인구가 증가하고 빈곤층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혼

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가계 빚 또는 파잉투자 등으로 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이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4) 윤리 및 건강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태도

청년들은 음주·도박·도벽·폭행·가출과 같은 사회적 윤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혼하려는 경향이 높았다<표 6>. 음주가 심할 경우 72.5%가 이혼한다고 하였고, 도박이 심할 경우 80.5%, 도벽이 심할 경우 78.1%, 폭행이 심할 경우 84.9%, 가출한 경우 65.7%가 이혼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여자들은 다른 어떤 상황에서보다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경우 이혼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음주·도박·도벽·폭행과 관련된 상황에서 90% 이상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였다. 청년

<표 6> 윤리 및 건강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태도

(N=425)

	성별	결코 이혼하지 않는다 N(%)	가능한 한 이혼하지 않는다 N(%)	가능한 한 이혼한다 N(%)	반드시 이혼한다 N(%)	M(SD)	t
음주가 심할 경우	남	18(10.6)	78(45.9)	35(20.6)	39(22.9)	2.21(8.4)	-5.92***
	여	1(0.4)	20(7.8)	64(25.1)	170(66.7)	2.70(.83)	
	계	19(4.5)	98(23.1)	99(23.3)	209(49.2)	3.17(.93)	
도박이 심할 경우	남	15(8.8)	54(31.8)	39(22.9)	62(36.5)	1.98(.74)	-3.88***
	여	2(0.8)	12(4.7)	51(20.0)	190(74.5)	2.25(.71)	
	계	17(4.0)	66(15.5)	90(21.2)	252(59.3)	3.35(.88)	
도벽이 심할 경우	남	16(9.4)	56(32.9)	41(24.1)	57(33.5)	2.21(.86)	-4.32***
	여	.	21(8.2)	46(18.0)	188(73.7)	2.56(.79)	
	계	16(3.8)	77(18.1)	87(20.5)	245(57.6)	3.32(.90)	
폭행이 심할 경우	남	18(10.6)	41(24.1)	42(24.7)	69(40.6)	2.19(.78)	-3.47***
	여	.	5(2.0)	24(9.4)	226(88.6)	2.44(.71)	
	계	18(4.2)	46(10.8)	66(15.5)	295(69.4)	3.50(.85)	
가출한 경우	남	13(7.6)	70(41.2)	44(25.9)	43(25.3)	2.64(.93)	-8.13***
	여	2(0.8)	61(23.9)	89(34.9)	103(40.4)	3.34(.78)	
	계	15(3.5)	131(30.8)	133(31.3)	146(34.4)	2.96(.89)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남	87(51.2)	74(43.5)	6(3.5)	3(1.8)	2.45(.88)	-5.78***
	여	78(30.6)	150(58.8)	22(8.6)	5(2.0)	2.93(.80)	
	계	165(38.8)	224(52.7)	28(6.6)	8(1.9)	1.72(.67)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경우	남	90(52.9)	74(43.5)	3(1.8)	3(1.8)	2.20(.85)	-3.04**
	여	106(41.6)	132(51.8)	13(5.1)	5(2.0)	2.44(.76)	
	계	196(46.1)	206(48.5)	16(3.8)	7(1.6)	1.61(.64)	

p<.01, *p<.001

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교육에 음주 등의 여가 문화와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윤리적인 상황과는 달리 청년들은 건강이 나쁘거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건강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혼하려는 의사가 많지 않았다. 건강이 나빠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남자의 5.3%, 여자의 10.6%가 이혼하겠다고 하였고,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경우 남자의 3.6%, 여자의 7.1%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였다. 현재의 청년들은 자녀의 존재 유무나 건강을 이혼의 중대 사유로 여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가족간 불화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태도

청년들은 자신이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갈등을 겪는 경우 이혼하겠다는 비율은 낮았지만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과 불화를 겪을 때는 이혼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자신이 배우자의 부모와 갈등을 겪는 경우 이혼하겠다는 비율은 28.0%였으나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89.2%가 이혼하겠다고 하였다<표 7>.

특히 남자들은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 82.3%가 이혼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혼과 관련된 상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미혼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가족이기주의 성향이 남자에게서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표 7> 가족간 불화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태도 (N=425)

	성별	결코 이혼하지 않는다 N(%)	가능한 한 이혼하지 않는다 N(%)	가능한 한 이혼한다 N(%)	반드시 이혼한다 N(%)	M(SD)	t
시댁(처가)와 갈등이 심할 경우	남	44(25.9)	101(59.4)	17(10.0)	8(4.7)	1.84(.79)	-9.05*
	여	6(2.4)	155(60.8)	61(23.9)	33(12.9)	2.56(.82)	
	계	50(11.8)	256(60.2)	78(18.4)	41(9.6)	2.26(.79)	
배우자가 나의 부모를 학대할 경우	남	7(4.1)	23(13.5)	40(23.5)	100(58.8)	1.88(.80)	-8.24***
	여	·	16(6.3)	37(14.5)	202(79.2)	2.53(.80)	
	계	7(1.6)	39(9.2)	77(18.1)	302(71.1)	3.59(.73)	

*p<0.05, ***p<.001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혼 허용도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았다. 남녀 평등 의식과 여성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높아질수록 여성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와 관련된 갈등도 커지리라고 예상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교육 프로그램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관계 맺기에 관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5개의 상황 영역 전체를 평가해 볼 때 청년들이 이혼에 대해 가장 허용적이었던 상황은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를 학대할 경우'였고, 그 다음이 '배우자의 폭행이

심할 경우', '배우자에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경우'였다.

여자가 이혼에 대해 가장 허용적이었던 경우는 '폭행이 심할 경우'였고, 다음으로는 '배우자가 나의 부모를 학대할 경우', '도박이 심할 경우', '도벽이 심할 경우', '음주가 심할 경우', '배우자에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경우' 순이었다.

남자에게서 가장 이혼하겠다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던 경우는 '배우자가 나의 부모를 학대할 경우', '배우자에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경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폭행이 심할 경우' 순이었다.

여자는 윤리와 관련된 문제, 가족간 불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혼하려는 경향이 높았지만, 남자는 가족간 불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이혼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여러 상황 중 남녀 모두가 이혼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경우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배우자에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경우'와 '배우자가 나의 부모를 학대할 경우'였다.

남자는 이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가 이혼하려는 태도를 보인 경우는 '배우자가 인격을 무시할 경우', '배우자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음주가 심할 경우', '도박이 심할 경우', '도벽이 심할 경우', '폭행이 심할 경우',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배우자가 나의 부모를 학대할 경우'였다.

반대로 여자는 이혼하지 않으려는데 반해 남자가 이혼하려는 태도를 보인 경우는 없었다. 모든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이었는데 이는 앞서 이혼이 성별화되어 있다는 이재경(2000) 등의 주장을 지지한다.

3. 이혼시 자녀에 대한 태도

이혼시 가장 걱정되는 것에 대해 청년들의 69.6%가 자녀양육을 가장 걱정하였다<표 8>. 남녀 모두 자녀양육을 가장 많이 걱정한 것으로 보아 자녀양육은 계속 이혼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 다음으로 많이 걱정한 것은 경제자립으로 14.3%의 청년이 이를 걱정하였다. 타인의 시선, 외로움, 가사처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편이었다.

<표 8> 이혼시 가장 걱정되는 것

(N=425)

	남자 N(%)	여자 N(%)	계(%)
자녀양육	124(72.9)	173(67.8)	297(69.9)
경제자립	5(2.9)	55(21.6)	60(14.1)
타인의 시선	14(8.2)	18(7.1)	32(7.5)
외로움	17(10.0)	6(2.4)	23(5.4)
가사처리	10(6.0)	3(1.1)	13(3.1)
계	170(100.0)	255(100.0)	425(100.0)
χ^2	43.97***		

***p<.001

남녀 청년간에는 걱정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 남자의 경우 자녀양육 다음으로 외로움을 걱정하였지만 여자의 경우는 자녀양육 다음으로 경제자립을 걱정하였다.

이혼시 자녀양육은 누가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가 81.2%로 많았다. 그러나 이혼 상대자인 배우자가 기르길 원하는 청년도 적지 않았다. 남자의 16.5%가 자신이 기르길 원치 않았고, 여자의 경우도 남자와 차이가 없는 18.4%가 본인이 기르길 원치 않았다<표 9>. 자녀양육을 원치 않는 여자가 적지 않다는 것은 여자들이 전보다는 이혼을 쉽게 생각하리라는 것을 시사하며, 남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을 예측케 한다. 편부 가정이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남자 청년들에게 양육에 관한 지식과 이해, 아버지 역할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남녀 모두 복지기관이나 친인척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다.

<표 9> 이혼시 자녀양육자 (N=425)

	남자 N(%)	여자 N(%)	계(%)
본인	138(81.2)	207(81.2)	345(81.2)
배우자	28(16.5)	47(18.4)	75(17.6)
복지기관	3(1.7)	1(0.4)	4(1.0)
친인척	1(0.6)	.	1(0.2)
계	170(100.0)	255(100.0)	425(100.0)
χ^2	3.93		

이혼을 부부관계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단절로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이혼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 자녀가 있을 때 전 배우자와는 어느 정도 면접을 가질 것인지 회수를 묻은 결과 1주에 1회 이상 만나겠다고 한 청년은 16.0%, 1달에 1-2회는 35.8%, 1년에 수회 23.8%, 몇 년에 한두번 12.9%, 11.5%의 청년은 전혀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다<표 10>.

<표 10> 자녀가 있을 때 전 배우자와의 면접회수 (N=425)

	남자 N(%)	여자 N(%)	계 (%)
전혀 만나지 않을 것임	32(18.8)	17(6.7)	49(11.5)
몇 년에 한두 번	17(10.0)	38(14.9)	55(12.9)
1년에 수회	40(23.5)	61(23.9)	101(23.8)
1달에 1-2회	49(28.8)	103(40.4)	152(35.8)
1주에 1회 이상	32(18.8)	36(14.1)	68(16.0)
계	170(100.0)	255(100.0)	425(100.0)
χ^2	20.40***		

***p<.001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2001)에서 이혼으로 별거하는 가정의 자녀의 47.0%가 별거하게 된 부모와 거의 접촉 없이 살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본 조사에서도 이혼할 경우 한달에 1-2회 이상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청년은 51.8%에 지나지 않았다.

전 배우자와의 면접회수에 대한 생각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자의 경우 만나지 않겠다는 비율이 6.7%로 낮았지만 남자는 전혀 만나지 않겠다는 비율이 18.8%로 높았다. 이혼은 부부간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할 뿐 부모자녀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부모자녀관계 교육이 특히 남자에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이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요인

청년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가족주의, 연령, 학력과 관계가 있었고 신앙과는 관련이 없었다<표 11>.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개인주의적 성향의 집단이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통합지향적 집단보다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이었다. 연령은 23세 이하 집단보다 24세 이상인 집단에서 이혼하려는 경향이 낮았다. 학력은 대재학 이상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이었다. 이는 통계청 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앞으로도 젊은 세대이면서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이혼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11> 이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요인

(N=425)

관련변인	범 위	남		여		전체		Scheffe
		M	SD	M	SD	M	SD	
가족주의	매우 높음	2.35	.66	2.78	.39	2.54	.58	a
	약간 높음	2.32	.47	2.83	.40	2.59	.50	a
	약간 낮음	2.46	.48	2.94	.34	2.77	.46	b
	매우 낮음	2.54	.75	2.94	.39	2.79	.58	b
	계	2.41	.54	2.90	.37	2.71	.51	
	F 값	1.29		2.12		4.89**		
연령	18-20세	2.51	.64	2.93	.36	2.80	.51	a
	21-23세	2.38	.48	2.89	.38	2.79	.44	a
	24-27세	2.37	.48	2.82	.43	2.43	.50	b
	계	2.41	.54	2.90	.37	2.71	.51	
	F 값	1.30		0.95		21.80***		
신앙	기독교	2.42	.69	2.86	.38	2.73	.53	
	천주교	2.44	.52	2.99	.35	2.82	.48	
	불교	2.32	.46	2.85	.38	2.57	.50	
	무교	2.44	.49	2.94	.37	2.72	.49	
	계	2.41	.54	2.90	.37	2.71	.51	
	F 값	0.46		1.59		2.18		
학력	고졸이하	2.27	.36	2.62	.43	2.46	.43	
	대재학이상	2.43	.55	2.92	.35	2.73	.50	
	t 값	-1.22		-3.79***		-3.43***		

p<.05,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이혼의 증가로 편부모 가정, 재혼 가정이 증가하고 자녀의 적응 문제, 아동의 유기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예방하고 예비부부 교육과 가정복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18-27세의 남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청년들은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와 같이 이혼자에 대해 부정적 편견은 적게 갖고 있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 이혼을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이들에게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혼자들은 배우자의 부정,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순으로 이혼을 제기하였으나(법원행정처, 2002), 미혼 청년들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부정,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순으로 이혼에 허용적이었다. 직계존속의 문제에 가장 허용적으로 반응한 것은 청년들이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않아 자신과 부모를 동일시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부간의 불화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성격불일치, 대화 부족과 같은 통합성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인격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본인에 대한 문제로 이혼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교육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은 불만족스런 성생활에 대해서는 이혼하려는 경향이 낮은 반면 애정을 느끼지 못할 때는 이혼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대구가정법률상담소(1999)에서 조사한 이혼사유에 성적 갈등보다 애정상실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앞으로도 결혼생활에서는 육체적 교류보다 정신적 교류가 더 중요시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청년들이 성적 불만족을 이혼의 사유로 여기는 경향은 높지 않았지만, 현재 이혼사유에서 배우자의 부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법원행정처, 2002) 성의 독점성이 깨진 경우에는 이혼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남자의 경우 다른 어떤 상황보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이혼하려는 의사가 많았다. 그러나 청년들은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해서 이혼할 의사가 많지 않았다. 이는 이혼에 대한 태도가 남녀에게 상이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가부장적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업 상태나 궁핍한 생활, 가계파탄이 유발될 경우 이혼하겠다는 청년의 비율이 적지 않았다. 현재 이혼 사유에서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통계청, 2001), 실직과 빈곤의 증가, 가계 빚 등으로 가계파탄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혼이 더욱 증가하리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결혼 교

육에서 가계재정관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도박·도벽·폭행·가출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청년들은 이혼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 특히 여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이혼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남자에게 윤리 교육, 여가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간의 갈등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이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갈등이 있을 때에는 이혼하겠다는 비율이 적었지만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이혼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자신의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교육이 이혼예방 교육에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는 모든 상황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여자는 남자보다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이어서 본 연구에서도 이혼이 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는 Heaton and Blake(1999), 이재경(2000)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었다.

성별분업과 가부장적 규범으로 가족을 위한 희생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이 그 반작용으로 결혼생활에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혼교육에서 성 차이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혼시 자녀양육은 기혼자와 마찬가지로 미혼 청년에게도 가장 많이 걱정되는 문제였다. 자녀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경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년의 약 17% 정도가 남녀의 차이없이 이혼상대자인 배우자가 자녀를 기르길 원하였다. 자녀양육을 맡고 싶어하지 않는 남녀의 비율이 낮지 않은 것은 이혼이 자녀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예측케 한다. 이혼에 따른 아동 유기 문제도 사회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것도 예상케 하므로 이에 대한 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자녀가 있을 때 전 배우자와 면접을 자주 갖겠다는 비율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혼을 부모자녀관계의 단절로 여겨 자녀가 있어도 쉽게 이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혼은 부부간의 관계 단절을 의미할 뿐 부모자녀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혼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년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가족주의, 연령, 학력과 관계가 있었고, 신앙과는 관계가 없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는 집단이 통합지향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진 집단보다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이었고 나이가 어린 집단이 많은 집단보다, 고학력 집단이 저학력 집단보다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이었다.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젊은 세대이면서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이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학에서 이혼 예방교육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사대상이 순천지역에 제한되어 있고 조사대상의 학력이 편중되어 있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청년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

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교육내용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애정을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서로의 결합에 관용을 베풀면서 인내심을 갖고 경제위기에 대처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가족을 존중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녀간에 결혼생활의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 차이가 있었고 이혼하려는 상황이 달랐으므로 서로의 욕구와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이 이혼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을 고려하여 성역할 변화와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남성에게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혼시 자녀양육을 원하는 남성의 비율이 적지 않으므로 남자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부부가 자녀양육을 모두 원하지 않을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녀유기에 대한 대책이 사회적으로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의 증가는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가치관은 청소년기에 결정적으로 형성되므로 결혼 및 가족과 관련된 교육은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뿐 아니라 중등 교육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실시되고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3년 1월 15일
- 심사 일 : 2003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4월 4일

【참 고 문 헌】

곽배희(2002).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보경(2001). 이혼가정의 학교-가정관계,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적응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가정법률상담소(1999). 상담통계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 대구:가정법률상담소.

데이비드 엘리트드(1999). 이봉원·김모란·윤옥경 옮김. 변화하는 가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법원행정처(1994). 사법연감.

법원행정처(2002). 사법연감.

신순자(1999). 신문기사에 나타난 새 가족법상 이혼판례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7(6), 109-122.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계숙·유영주(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5), 79-94.

이소희·정민자·김경희·박인전·손지미·김영란·홍계옥·도미향·김민정(1998). 현대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이영숙·박경란·전귀연(1999). 가족문제론. 서울: 학지사.

이재경(2000). 성별화된(Gendered) 이혼과 여성. 가족과 문화, 12(2), 81-98.

이정덕·김경신·문혜숙·송현애·김일명(1998).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학지사.

이종한·이윤희(2000). 이혼제도와 실태. 한국심리학회지, 5(2), 59-83.

이현송(1999). 주관적 이혼사유의 변화: 법원 자료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1(2), 73-98.

전숙영(1996). 이혼과 재혼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앙일보(2001). 배우자와 이혼 고려 44%. 2001. 12. 28. 2면.

중앙일보(2002). 자녀양육 '떠밀기' 심하다. 2002. 10. 21. 14면.

지명원(2001). 이혼여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2001). 이혼사유별 이혼분포. <http://www.nso.go.kr>.

한경순(1999). 남녀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7(9), 13-24.

한경혜·이정화(2002).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9), 161-174.

한국여성개발원(1998). 1998여성통계연보.

한국청소년상담원 편(2001). 이혼가정의 아이들.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Amato, P.R. and Rogers, S. J. (1999). Do Attitudes toward divorce affect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20(1), 69-86.

Booth, A. and Amato, P. R. (2000). Predictors of divorce adjustment: stressors, resources, and defin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655-668.

Glenn, N. (1996). The recent trend in marital succes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61-270.

Heaton, Tim B. and Ashley M. Blake (1999). Gender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0(1), 24-45.

Thomton, A.(1989). Changing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73-893.